상월선원, 대중 수행·기도처로 '자리매김'

한 달 맞은 위례천막결사 성과와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당신이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며 맹세하듯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 다.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 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

지난 11월 11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 원에 방부를 들인 9명의 스님들이 무문 관 동안거 정진에 들어가며 부처님에 고 한 서원이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 롯해 성곡(용주사) · 호산(수국사) · 무 연(해인사) · 심우(고불암) · 진각(봉은 사) · 도림(정수사) · 인산(송광사) 스님 은 현재 눈과 비, 최소한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상월선원에서 정진 을 이어가고 있다.

9명의 스님들은 △하루 14시간 이상 정 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목욕 금지 △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 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이를 지키며 수행 중이다.

계종 승적에서 제외한다는 각서와 제적 원까지 제출했다. 생명과 같은 승적까지 걸고 수행에 들어간 것이다.

'열린 결사'로 외호 나선 대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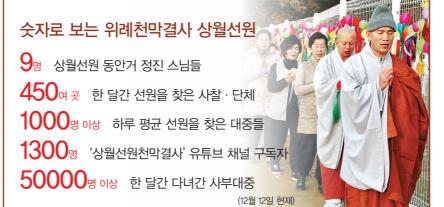
9명 스님들의 안거 입재 이후 한 달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은 9명 스님들의 용맹정진 수행처이자 외호 대중들의 야 단법석 기도 · 수행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중들은 '열린 결사' 로서 9명 스 님들의 외호에 나선 것이다.

상월선원 일정표에 따르면 외호대중 들이 천막법당에서 기도와 법회를 시작 한 것은 11월 15일부터다. 이후 전국 사 찰을 비롯해 동국대 등 종립학교, 포교단 체에서 휴일없이 상월선원을 찾아 기도 와 정진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상월선원을 찾은 사찰과 단 체는 450여 곳으로, 선원 측에 따르면 하 루 평균 1000명 이상이 다녀가고 있다. 한 달이 지난 12월 12일 현재 상월선원에 다녀간 전국의 스님, 불자들은 선원 측 추산 5만 명에 달한다.

외호 대중을 천명한 사찰들도 게으름 없이 정진 중이다. 조계사는 매주 화요 일과 토요일에 상월선원을 찾아 정진하 고 있다. 봉은사는 둘째, 넷째주 목요일 에 개최하던 상설음악회 '박범훈의 소리 길 여행'의 장소를 상월선원으로 옮겼으 또한 이들 스님들은 규약을 어길 시 조 명, 매주 토요일마다 봉은사 사부대중들 의 정진 동참도 이뤄지고 있다.

12월 7일에는 조계사, 봉은사, 봉국사 대중을 중심으로 첫 철야정진이 봉행됐



11월 11일 동안거 입재 이후 전국 450여 사찰서 5만명 찾아 기도 · 수행 · 음악 조화 '야단법석' 12월 7일엔 첫 철야정진 진행 '대중 무문관' 운영… 체험 시작 천막결사 의미 학술 조명 시도

으며, 12월 14일에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들이 철야정진으로 9명의 스님들을 외호

자원봉사와 보시도 위례천막결사를 이끄는 힘이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 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 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하고 있다. 봉은사 와 봉국사에서도 대중공양을 올리고 있 으며, 화장실·법당청소 자원봉사자들 도 20여 명에 달한다.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 대의 결사 모습이다. 특히 현재 1300명이 구독 중인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일정 공지부터 정진 현장을 생생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실제 유튜브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상 월선원 정진법회에 참여한 젊은 불자도 있었다. 지난 11월 23일 현장에서 만난 김규리(30, 서울 성북구) 씨는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인데 흥미가 생겨 서 직접 상월선원을 찾게 됐다. 오랜만에 교외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소원등도 달 아 즐거웠다"고 말했다.

'대중 무문관' 열기 뜨겁다

일반 대중이 스스로 무문관 수행을 체 험해보는 체험관 '대중 무문관'도 주목

해야 한다.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12월 7 일 공식 개원한 '대중 무문관'은 불교 오피니언 리더 윤성이 동국대 총장, 이기 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선상신 前 불교 방송 사장, 임명배 前 한국에너지공단 상 임감사가 입방해 1박 2일동안 수행하며 시작을 알렸다.

12월 8~9일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수석부의장 장명 스님, 차석 부의장 법원 스님이 '대중 무문관'에서 수행 체험을 진행했으며, 13~15일엔 조 계사불교대학 최고위 과정 여성불자 4인 이 정진에 동참했다.

스님들이 천막안거 결사를 시작한 것은 한국불교 수행풍토를 새롭게 일신하고 자 하는 원력을 세웠기 때문"이라며 "종 회의장단도 한국불교를 위해 새로운 수 행문화를 일으키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 다"고 동참 취지를 설명했다.

부의장 법원 스님도 "현재 상월선원에 서는 전국 각지 대중들이 찾아와 수행 • 기도 정진하며 새로운 수행문화를 만들 어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수행문화의 변화를 체험해야 종단 종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종단 사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 록 스스로 열심히 정진해보겠다"고 밝

대중 무문관에서의 수행 체험은 꾸준히 이어진다. 실제 내년 1월 초에는 중앙종회 분과위원장 각림 · 함결 · 제정 · 만당 스 님이 대중 무문관 방부를 들 예정이다.

결사 의미 조명 노력도

유례가 없는 수행ㆍ기도ㆍ봉사의 현 장이 되고 있는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노력도 불교 전문학자들을 중 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A3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정해지지 않 았지만, 불교학자 10여 명이 위례천막결 사의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토론회를 준 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위례천막결사는 이전에 있었던 결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사"라면서 "새로운 수행·신행문화가 만들어지고 범해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정진하는 있는 위례천막결사의 의미를 역사적 • 교학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논의해야 필 요가 있다. 전문학자 2~3명의 주제발표 부터 종합토론까지 이어지는 학술토론 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 총도감을 맡고 있는 혜일 스님(성남 봉국사 주지)은 이 같은 대중들의 호응 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으며, 상월선원의 정진이 한국불교 중흥의 계기가 될 것으 로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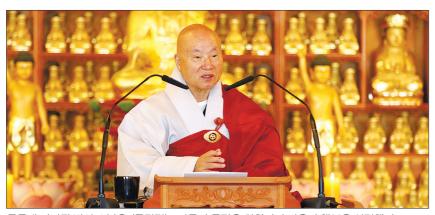
> 혜일 스님은 "천막법당 정진부터 대중 무문관 체험까지 사부대중의 호응이 이 처럼 뜨거울 줄 몰랐다. 이는 매우 고무적 인 일"이라며 "일체 동원 없이 자발적으 로 선원을 찾아 정진하는 대중을 보며 이 번 결사가 한국불교 수행·신행문화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확신 하게 됐다. 결사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외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움서 오는 행복, 금강경 독송 공덕"

법산 스님 금강경 5만 독송 12월 8일 봉은사서 '기념법회

2001년 11월 17일, 한 스님은 부처님 앞에서 〈금강경〉 10만독을 서원했다. 하 루에 1독씩 한다면 무려 274년이 걸리는 일이었다. 매일 10독씩 한다 쳐도 28년 가량이 걸리는 대발원이었다.

60세가 넘어 긴 교직생활을 마무리 한 스님은 조용히 지리산의 선원에 들었다. 부처님께 서원한 〈금강경〉 독송을 이어 가기 위해서였다. 하루에 많게는 25독까 지, 스님의 정진은 이어졌다. 매일 틈틈 이 행주좌와 〈금강경〉을 독송한 스님은 일흔이 넘은 나이에 드디어 〈금강경〉 5 만독을 이뤘다. 바로 조계종 대종사이자 현재 동국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법산 스님의 이야기다.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은 〈금강경〉 5만독의 공덕을 회향하며 비움의 행복을 설명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월 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동국대 이사장 법 산 스님 금강경 5만독 성만 기념 특별 일 요법회'를 열었다. 이 법회서는 법산 스 님이 십수년간 이어온 〈금강경〉 독송에 서 얻은 깨달음을 대중과 함께 나누는 법석이 펼쳐졌다.

"선(禪)을 아무리 오래해도, 〈금강경〉 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한 생각을 내려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일어나는 순간, 새벽에 샛별이 빛을 비추 며 모든 업식이 딱 떨어진 돈오돈수의 순 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비우지 못 하면 걱정과 근심의 번뇌에 사로잡힙니

다.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어 딱 인식이 바뀌는 그 순간이야 말로 행복입니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은 바로 '비움 의 도리'이자 '비움의 철학'이라고 설명 했다. 스님은 또 〈벽암록〉에 나오는 덕산 스님과 노파의 일화를 들었다. 이 일화는 '주금강' 이라 불릴 만큼 〈금강경〉에 관 한 독보적인 덕산 스님이 점심 때 호떡을 팔던 노파를 만나 나눈 대화다.

법산 스님은 "금강경에 이르길 '과거 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인 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렵니 까(點心)라는 질문에 덕산 스님이 거기 에 콱 막혔다. 결국 한 생각 버릴 줄 알아 야 하고 이것이 바로 상을 내려놓는 참회 다"며 "이뭣고를 해도 참회가 되고, 〈금 강경〉을 읽어도 참회가 되고 끊임없이 나 를 비우고 비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위상 강화, 대사회 운동서 시작"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12일 포교원 세미나서 주장

전통 위상 높지만 사회위상 낮아 대사회운동 전개 필요성 제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2월 12 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 종도의 가치관 바로세우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사진〉가 '한국불교에 서 조계종단의 위상과 역량'발표를 통 해 주문했다.

김 교수는 조계종의 종교적 위상으로 "조계종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 해 사회적 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적 서비스가 종교가 아닌 공공서비 스로 대체되며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당한 위상을 유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덕현기자



지하고 있다"고 말

이와 함께 김 교 수는 종단 차원의 위상 유지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수행의

위상이 더욱 고양되기 위해서는 수행지 도력이 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고, 간화선을 바탕으로 한 수행전통과 체계들 확실히 하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종교적 위상 확대를 위해서는 불교운동을 거시적 포 교전략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각 과 실천', '문화와 치유', '현대인을 위 한 팔정도'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 고 이를 활용한 대사회 운동을 전개해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04 무진향 031)470-3118

